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9. 11.(금)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9월 11일(금)부터		
담당부서	의정담당관 의정팀	담당자	박경용 사무관 ☎044-300-7211
			김용모 주무관 ☎044-300-7212

세종시의회, 제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 개최… 청렴 의정 실천 다져

하반기 이해충돌방지 점검 '위반 Zero'… 민간 업무 내역 등 청렴성 재확인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성과 공유 및 지방의원 영리행위 적정성 면밀 자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는 10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제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동강령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지방의원 영리행위 신고 건에 대한 적정성 자문이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먼저 2026년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가 보고됐다. 의원 21명과 사무처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및 가족 채용 제한 등 필수·선택 항목을 점검한 결과 단 한 건의 위반사항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의정활동 중 직무권한 오남용을 예방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의원-공무원 상호존중 가이드라인'의 시행 결과가 공유됐다.

의회는 전 의원과 사무처 구성원이 동참한 인증 챌린지 및 카드뉴스·청사 로비 모니터 등을 활용한 대내외 홍보 성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안내하여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자문 안건으로는 접수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신고 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영리행위와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개인적 이해관계와 공적 직무 수행 간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신고 의원에게 적정 여부를 통보하고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강내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세종시의회의 청렴성을 한 단계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엄정한 자문 활동을 통해 시민이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